



날은 홍범도장군

2019.06 제21호 여름



발행인 : 우원식 • 편집인 : 홍순계 • www.hongbumdo.org • 창간 2014년 6월1일

“독립전쟁!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홍범도장군의 봉오동전투 / 임직순 화가 작

우원식 이사장, 문재인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카자흐스탄 방문, 고려극장 연극 함께 관람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카자흐스탄 국민방문 일정으로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과 현지교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번 국민방문은 우원식 이사장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동행했다. 이날 극장 밖에는 카자흐스탄어와 한글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나붙었고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내외는 뒤이어 극장으로 입장해 '열렬히 축복하리라'라는 연극을 감상했다.

연극에는 어려움에 처한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인들이 도와주는 장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초원을 멀리 둘러보는 모습 등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 내외는 연극 중 아리랑이 열창된 뒤 또 다른 공연단이 한복을 입고 무대로 나와 군무와 합창을 선보이자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노래가 끝날 때까지 박자를 맞춰 박수를 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후에는 고려극장 관계자 등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이들에게 "고려극장을 오랜 세월 운영하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도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원식 이사장을 가리키며 우 의원이 하는 일에 모두가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추진



4월 22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크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토크예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 점 존중한다. 외교·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이슈를 협의할 수 있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양국 관계와 국민 간 교류 등을 감안해 이 문제가 내년 행사 때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홍범도장군의 유해봉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기념 국민대회 개최

역대 최초로 국회에서 개최, 홍범도장군 외손녀 김알라 여사 참석
영화 '봉오동전투' 메이킹필름 최초 공개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는 6월7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업회와 남양홍씨남양군과대중중회(회장 홍성중)가 공동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재향군인회가 후원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헌신을 추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역대최초 국회서 개최

올해 기념식은 역대 최초로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인 김알라 여사가 직접 국민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홍범도장군과 함께 봉오동전투 승리를 이끌었던 최운산장군, 청산리대첩의 승리를 이끌었던 이범석 장군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가 한 자리에 모여 독립전쟁의 의미를 되살렸다. 또한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기념사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김원웅 광복회장,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바킷 듀센바예프 카자흐스탄 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남인순, 박홍근, 서삼석, 오영훈, 이학영, 표창원 등 많은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8월 개봉예정 영화 '봉오동전투'메이킹필름 최초 공개

이날 기념식을 통해 올해 개봉예정인 4일간의 봉오동전투를 다룬 영화 '전투'의 메이킹 필름이 최초로 공개됐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조환래 함장이 홍범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홍범도장군 어록 서각작품 기증식, 해군 홍범도함 승조원합창단의 '날은 홍범도가' 합창공연 등



홍범도함 승조원 합창단 공연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우원식 이사장은 이날 개최사를 통해 "내년 2020년은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는 독립전쟁이 시작된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이고, 반쪽짜리 우리 역사를 완성하는 일로서 독립전쟁 100주년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범도장군 어록 서각 기증식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국민대회 이사장 기념사 독립전쟁 100년을 새롭게 조명해 가야 내년 100주년 행사까지 유해봉환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안녕하십니까.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남양홍씨 남양군과 대중중회 종친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재향군인회 회원여러분!

봉오동전투 99주년을 맞아 봉오동전투 승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는 뜻 깊은 행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이신 김알라 여사님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게 돼 더욱 뜻이 깊습니다.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민족에게 한 줄기 빛

봉오동전투는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독립전쟁에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독립전쟁으로 한 차원 더 끌어올리고, 일제의 압도적 무력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봉오동전투의 승리는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 받던 민족에게 암흑 속에 한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일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이후 청산리대첩과 같은 크고 작은 독립전쟁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온 동포사회가 혼연일체 된 기적의 승리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의 희생과 주민들의 헌신이 합쳐진, 그야말로 북간도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온 동포사회가 혼연일체 되어 거둔 ‘기적의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이끈 것은 홍범도, 최진동, 최운산, 안무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전한 대원들도, 식량을 공급한 봉오동지역 주민들도, 무기를 구입할 군자금을 제공한 분도, 자녀들을 독립군에 보낸 부모들도, 모두가 기적을 일군 주인공이었습니다.

화합과 통합의 정신으로 어려움 이겨내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 독립을 위해 하나로 모은 마음은 통합된 힘으로 승화되었고,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연합부대는 각각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종교도, 출신도 모두 달랐지만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 결과, 독립전쟁의 빛나는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힘은 바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었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이념도 구분 없이 광복을 향한 열망 하나로 뭉쳤습니다.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의 신념이 최고의 이념이었고, 그것이 애국이었습니다.

2020년 봉오동전투 100주년, 독립전쟁 100년의 시작

내년 2020년은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봉오동 전투로부터 시작된 항일무장운동을 ‘독립전쟁’이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독립전쟁 100년’을 새롭게 조명해 가야합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이며, 반쪽짜리 우리 역사를 완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우리 군의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하신바 있습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독립전쟁 100년 준비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민족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념사업회, 유해봉환 등 독립전쟁100년 기념사업 추진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1년간,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장군의 유해봉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에 방문하셨을 때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카자흐스탄 정부도 내년 봉오동전투 100주년까지 이 일이 성사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 홍범도 장군을 고국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념사업회는 자신보다 민족과 나라를 위한 숭고한 삶을 택한 숨은 영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잊혀진 영웅들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새겨나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축하 및 치사 문희상 국회의장, “독립운동가 업적을 알리고 계승하는데 국회서 적극 노력할 것”



왼쪽부터 김원웅 광복회장 문희상 국회의장, 우원식 이사장,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조환래 홍범도합장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국민대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으로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민족의 영웅”이라며 “홍범도 장군과 같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업적을 계승하는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찬 명예이사장은 “봉오동대첩은 강대국에 의하여 포위된 환경적 열세를 극복하여 승리를 쟁취한 무장독립투쟁사의 위대한 업적”이라며 “이 기회에 항일무장독립투쟁사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은 “99년전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독립군 용사님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애국심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되살아나 국가를 지키고 발전

도모하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고 축하했으며,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독립군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동포들을 대표로 축하를 한 최후택 연변대 교수는 “봉오동전투 승리는 한반도는 물론, 그 당시 일제로부터 침략과 유린당하고 있던 중국과 기타 나라 인민들에게 오로지 무장투쟁만이 자신을 해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광휘로운 전투 실례”라고 축하했으며, 바킷 듀센바예프(Bakyt DYUSSENBAEV) 카자흐스탄 대사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은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카자흐인과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범도장군의 외손녀인 김알라 여사는 “홍범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봉오동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 품에 안겼던 아기였다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다”며 “다시는 일본과 같이 힘센 나라에 점령당하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되찾기 위해 싸웠던 독립군의 정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해 감동을 선사했다.



김알라 여사 축하

유해진.류준열.조우진 뭉친 영화 '봉오동전투', 8월 개봉 확정

배우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주연 전투 액션 영화 '봉오동 전투'(원신연 감독, 더블유픽처스 제작)가 오는 8월 개봉을 확정했다.

8월 극장가에 출정할 '봉오동 전투'는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합류와 '용의자' '살인자의 기억법'을 연출한 장르물의 대가 원신연 감독의 차기작으로 제작 초기부터 시선을 집중시킨 화제작이다.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이자 승리의 역사인 봉오동 전투, 첫 승리를 일궈내기까지 독립군의 투쟁과 숨은 이야기를 원신연 감독이 오랜 준비 끝에 스크린에 완벽하게 재현한다. 6월7일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기념식에 3분짜리 메이킹 필름이 최초로 공개돼 많은 기대를 낳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우원식 이사장은 “많은 국민들이 봉오동전투를 영화로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영화 개봉을 계기로 독립전쟁 100년 기념사업 준비와 더불어 홍범도 장군이 국민 속에 제대로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오동전투 99주년 특별기고>

무장독립군기지 봉오동과 최운산 장군

간도 제일의 巨富 최운산(崔雲山) 장군은
자력으로 봉오동에 대한민국의 첫 군대 <대한군무도독부>를 창설했다.
형님인 최진동장군과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북간도의 모든 무장독립군들과 함께
대규모 통합군단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해 봉오동·청산리전투에서 승리했다.



최운산 장군은 연변도태 최우삼의 2남으로 1885. 11.17 만주 길림성 연길현 국자가에서 출생했다. 아명은 明吉이며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며 萬益, 文武, 高麗, 豐, 斌 등 여러 이름을 사용했다. 능숙한 중국어와 뛰어난 무술실력으로 당시 동삼성의 지배세력인 장작림 군벌에서 군사훈련을 책임졌고 전투에서 장작림의 목숨을 구해주는 등 중국군과 혈맹의 관계를 형성했다. 왕청현의 總辦(총판)으로 일하면서 10여개 지방(토지단위, 우리나라 郡 크기의 면적)을 소유하였고 이후 대소 독립군부대의 근거지로 제공하였다.

1907년 김성녀 여사와 혼인하고 1910년 一家 4代가 도시인 연길을 떠나 봉오동으로 이주하여 동포들과 신한촌 건설하였다. 1912년 당시 횡행하던 비적으로부터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봉오동에 창설한 사병부대가 후일 무장독립군의 모체가 되었다. 콩기름공장·국수공장·양조장·과자공장·성냥공장·비누공장 등 다양한 생필품 공장을 운영한 기업가였으며 대규모 축산업으로 곡물과 소를 러시아군의 식량으로 수출하는 무역상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러시아군인들과 긴밀하게 접촉했기에 휘하의 사병들을 러시아제 총으로 무장시킬 수 있었다.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북간도 제1의 거부가 된 그는 식량 및 군복, 무기 등 무장독립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군자금들을 자비로 감당하였다. 1915년 봉오동 산중턱을 별목 개간해 연병장을 건설하고, 수백 명 독립군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막사 3개동을 건축하고 본부인 저택 둘레에 대규모 토성을 축조하여 봉오동 독립군기지를 완성했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최운산 장군은 사병부대를 대한민국의 군대로 재창설하였다. 만주 봉오동에서 대한민국의 첫 군대

<대한군무도독부>가 창설된 것이다. 형님인 최진동장군이 사령관에 취임하였다. 또한 자신의 소유지 서대파에 무기·식량·군복 등 군자금 일체를 제공하여 <대한북로군정서>를 창설하고 3.1운동 이후 급격히 늘어난 독립군들을 훈련하기 위해 십리평에 단기 사관학교인 <사관연성소>를 설립했다. 일본 정규군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1920년 만주의 대소 독립군들이 모두 통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 최운산 장군이 모든 군자금과 무기를 제공했다는 약조가 있었다. 신형무기로 무장한 통합군단 <대한북로독군부>는 일본 정규군대와 싸웠던 독립전쟁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최운산장군은 최문무란 이름으로 전투에 참전했으며, 최만익, 최풍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하였다.



최진동, 최운산, 최지흥 삼형제

최운산장군은 일생동안 모두 6차례 투옥되었다. 보천보전투의 배후로 지목되어 獄苦를 치렀고 1939년에도 10개월간 獄苦를 치렀다. 해방 직전까지 삼림지역인 대항구에서 약 500백 명의 무장 독립군을 비밀리에 운영하는 등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장독립군부대를 운영하며 다양한 기업과 토지 등 거대한 재산을 모두 소진하였다. 1945년 7월 5일 고문에 의한 신병으로 평양에서 순국하였고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서훈되었다.

2016년 7월 4일 일생동안 무장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운산장군의 뜻을 기리는 사람들이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창립했다.

무장독립운동 장군열전 - 8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청전 안무(安武)장군



대하소설 ‘두만강’에 안무의 죽음을 상세히 기록한 작가 이기영은 소설에 당시의 조시(弔詩)를 소개했다. ‘하늘에 사무친 유한은 구름빛을 시꺼멓게 물들이고/땅 위에 거꾸러진 충혼은 피꽃이 붉게 피었더라.’(遺恨充天雲色黑 忠魂塗地血花紅).

대한제국 군인에서 의병으로, 그리고 독립군으로서 독립군 3대 전투 중 2대 전투를 승리케 한 안무 장군은 1883년 함북 경성에서 출생하여 1924년 41세로 순국한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빛날 분이다. 17세까지 고향에서 성장한 선생은 1899년 대한제국 진위대병사로 입대하여 하사관을 거쳐 서울 교련관 양성소를 졸업한 후 무산 등지에서 교련관으로 근무하였다.

1910년 일제가 나라를 병탄하자 안무는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한다. 간도에 망명해서 화룡현에 정착, 학교를 세우고 교육운동을 벌인다. 서일 대종사가 3년간 재직하였던 함일학교(咸一學校)와 무산의 보성학교(普成學校)의 체육교사로 학생들에게 병영식 체조를 가르쳤다.

안무가 독립군 부대에 투신하게 된 것은 대한국민회에 가입하면서부터다. 3·1운동 직후 간도에서는 종래에 결성됐던 한인자치기관 간민회를 기초로 대한국민회가 조직된다. 당시 북간도 전역에 지회를 둘 만큼 방대한 조직을 거느렸던 대한국민회는 직할로 ‘국민회군’(일명 대한국민군)을 창설하고 사령관에 안무를 임명한다. 국민회군은 독립군 부대이면서 대한국민회의 조직을 보호하는 경찰관 기능도 담당했다. 당시 국민회군의 대원은 500명 정도였다. 1920년 5월 국민회군은 대한국민회의 독립군 통합정책에 따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북로독군부 등과 연합한다. 당시 연합부대의 명칭은 대한북로독군부. 독군부 사령관은 최진동, 부관은 안무, 연대장은 홍범도가 맡았다.

1920년 6월 7일, 연대장 홍범도는 700여 명의 연합 독립군 부대를 지휘하여 일본군 남양수비대 제19사단을 화룡현 봉오동에서 공략하여 적 150여 명을 살상, 패주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안무의 국민회군은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어랑촌 전투와 완루구 전투, 고동하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섬멸

했다.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 연대장을 포함한 1,200여 명을 사살 당한 반면, 독립군 측 전사자는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의 간도 출병 후 독립군이 일본군과 치른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최대의 전과를 거둔 전투였다.

청산리 대첩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독립군단의 대표들은 회의를 열어 장기항전을 다짐하고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였다. 대한독립군단 총재에 서일, 부총재에 홍범도와 김좌진이 선임되었다. 밀산에 집결하였던 치청천, 최진동, 홍범도, 김규식 등과 함께 안무도 노령 이만을 거쳐 1921년 6월에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제야강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었던 안무의 국민회군은 다행히 자유시 참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무사히 북간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안무는 왕청현 나자구 일대에서 독립군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신참변 이후 초토화된 북간도 지역에서의 와해된 독립군을 재건하기란 쉽지 않았다.

안무는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국민회군 대표로 참여하여 10인의 국민위원 중 1인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24년 용정을 중심으로 북간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안무의 동정은 일본영사관에 고용된 조선인 밀정에 탐지되어 9월 6일 일경의 습격을 받아 모아산 부근에서 교전하던 중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안무 장군은 일제의 모진 고문에 다음날 41세로 순국한다.

정부는 1980년 안무 장군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아깝게도 안무 장군이 부각되지 못한 것은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2인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1920년대 간도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립군을 이끌고 일관성 있게 무장투쟁을 벌인 항일운동가이다.

글: 홍성덕 이사(전)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임원투고 홍범도장군의 길을 따라



홍순계(기념사업회 상임이사,
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작년 여름 우원식의원께서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 상근하면서 여러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물심양면 여유가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아버님께 “우원식의원이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너는 뭐 하는거 없느냐?”라고 하셨다. 아버님께서는 남양홍씨대중중회를 통해 홍범도장군과 기념사업회에 대해 알고 계셨다. 나는 순간 “예,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바로 기념사업회이사로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금껏 홍장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을 통해 대강 알고 있었을 뿐이기에 우선 관련 책과 논문·자료들을 두루 읽기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독서를 해왔지만, 홍장군의 삶과 투쟁은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켰다.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희생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삶보다 더 귀중한 무엇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 바로 조국의 자주독립이다. 이러한 애국의 길이 새삼스럽게 나를 일깨운 것이다. 학교 다닐 때 유신반대시위에 참여하거나, 직장생활하면서 87년 6월항쟁과 7·8월노동자대투쟁 그리고 지난번 촛불혁명까지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뿐더러 구속되는 것조차 피하고 싶었기에 홍장군의 삶은 무겁고 엄숙하게 다가왔다. 홍장군의 무장투쟁이 우리민족의 근현대사에 빛지고 있는 마음을 다시 흔들어 깨워주었다. 독립운동은 외교론, 실력양성론 계몽교육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독립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성명서에 이름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독립전쟁은 가장 전통적인 독립운동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홍장군은 나라의 혜택도 받지 못한 평민의 처지에서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발전하여 1920년대까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풍찬노숙 질풍노도로 목숨 바쳐 독립전쟁에 나섰건만 아직도 조국은 분단 상태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미완의 과제는 이제 우리의 몫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이 시대과제이듯 분단체제에선 통일운동이 시대과제인 것이다. 우리 시대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여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그 길은 독립운동가의 뉘를 기리고 계승하며 친일세력과 사대주의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외세의 군사적 강점에 대해서는 무장투쟁과 독립전쟁으로 맞서는 게 올바른 길이지만, 민족내부의 통일에 대해서는 오직 평화적인 방식만이 올바르고 현실적이다. 홍장군의 삶과 투쟁과 사상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에,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 공동의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해외에서 다 같이 인정과 존경을 받기에 한민족공동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홍장군의 삶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자세가 보인다. 첫째, 늘 연합과 협동의 정신으로 전투에 임할 때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실생활에서도 계·협동 조합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을 중시했다. 둘째, 남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며, 무기도 스스로 돈을 벌어 자력으로 구입·제작 하는 등 자주자립정신이 투철하였다. 셋째, 늘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민중의 삶을 배려 중시하였다.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환단고기출판을 지원하는 등 단군정신에 의한 민족주체성을 강조하였고, 동학이나 사회주의 이념까지 다양하게 수용하고 활용하였다. 그의 삶도 철저하게 민중적인 것으로 머슴살이, 종이공장, 금광, 산포수, 농업, 어업 등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두루 하면서 늘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병투쟁·독립전쟁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독립운동에 대한 보훈을 강조하며, 대통령께서 직접 홍장군유해봉환 의지를 거듭 밝히셨다. 이에 발맞추어 여타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와 더불어 그리고 남과 북 나아가 해외까지 함께 내년 독립전쟁승리 100주년을 성대하게 준비해야겠다.

‘독립전쟁 100주년’ 본격적인 준비, 이낙연 국무총리와 협의



기념사업회는 내년 2020년 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전쟁 100주년’ 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무장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100주년 기념비 건립과 함께 범국민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독립군의 빛나는 항일전의 업적을 기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원식 이사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봉오동 전승 100주년 기념식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전승 유적지 현장 답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사업, 김좌진장군·이범석장군 기념사업회와 함께 한다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을동)과 이범석장군 기념사업회(이사장 박남수)가 내년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후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주년 기념행사, 기념비 건립 등을 논의해갈 예정이다.

우원식 이사장,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예함장으로 위촉



<봉오동전투 전승99주년기념 국민대회>에서 우원식 이사장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예함장으로 위촉됐다.

해군의 7번째 손원일급(장보고-Ⅱ급) 잠수함인 홍범도함은 1800톤 규모로 어뢰와 기뢰 등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으며, 성능 면에서 수중작전 지속 능력, 은밀성, 수중음향 탐지 능력이 뛰어나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최고로 꼽힌다.

한국사 ‘스타강사’ 설민석 대표 “홍범도 장군을 알리는 일, 마음을 다해 돕겠다”



지난 4월16일 우원식 이사장은 한국사 대표 강사 설민석 대표를 만났다. 이날 이사장은 설민석 대표에게 기념사업회의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 홍범도장군과 기념사업회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요청했고, 설 대표는 흔쾌히 마음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설민석 대표는 역사콘텐츠 대중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한국사 강사다. EBS 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는 단꿈교육의 대표이사다.

괴태 (느티나무 괴, 클 태) 전승택 작가, 홍범도 장군 어록(소지관철) 서각작품 기증

소지관철(素志貫徹):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관철시킨다.

전체적인 바탕은 홍범도장군이 걸어온 험난한 발자취와 장군들이 입는 갑옷을 형상화하기 위해 동근 끌로 쳐내서 효과를 냈다. 이름에는 호랑이 발을 하고 부월과 삼지창을 든 모습을 보이도록 했다. 맨위에는 두언을 쓰는 대신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은혜를 숭상하는 햇무리 땅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햇살이 독립을 위해서 세계만방에 비추기를 원하는 장군의 마음을 담았다.

‘소지관철(素志貫徹)’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기에 음각으로 희미하게 새겼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지관철하기가 현실에는 어렵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는 황금보다 귀한 것이라는 뜻으로 황금색을 칠했다.



괴태 전승택 전각·서각 작가
괴태갤러리 관장
31운동 백주년 독립기념과 초대전
임시정부 백주년 상해갤러리 초대전
경복궁 메트로갤러리 최대전 외 다수

5월21일, 신임이사 18명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식 개최

4월24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18명에 대한 신임이사 임명장 수여식이 5월21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국화실에서 열렸다. 이날 환영식에는 신임이사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을 포함해 김현권 의원, 박완주 의원, 홍의락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신임이사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4월24일, 임원회의 개최



4월24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국화룸에서 4월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회의는 신임이사 선출 건, 간사 임명 건, 활성화TF활동보고,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기념대회 개최보고, 2020년 기념사업회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기념사업회, 우경옥 간사 임명



기념사업회는 4월 임원회의에서 우경옥 간사로 임명하고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우경옥 간사는 “기념사업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일하겠습니다”거 포부를 밝혔다.

우경옥 간사는 연세대학교 가정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황원섭 부이사장 3.17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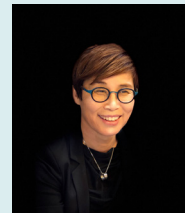
3월 17일 황원섭 부이사장은 경기도 안산시 고려인마을에서 열린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3.17독립선언 100주년기념식’ 및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 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임시정부(대한국민의회)를 수립하고 독립선언을 한지 10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고 고려인 동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대한고려인 협회, 너머, 안산의제21, 안산희망재단이 주최했다

신임 이사 인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이때,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었던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업적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홍범도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뜨거운 애국심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국가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내년 봉오동 전투 100주년의 빛나는 승전을 기리고, 대한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현대사에 기록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했던 삶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석순웅 (특허법인 신세기 최고운영위원)

3년 전 즈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대학동기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곳에서 고려인들의 삶과 강제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카자흐에 참 외로운 묘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로운 묘소의 주인공은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존경하는 선배님을 통해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참여를 제안 받았습니다. 기념사업회와의 인연은 좋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보다 평등한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 (전 한남대 부총장)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제 역사의식의 시간을 100년의 과거로 되돌리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홍범도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해방은 결코 분단된 조국도, 반쪽짜리 해방도 아니었기에 그 분들의 뜻을 계승하는 일은 통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개된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사가 함께 아울러져야 완성된 독립운동사가 될 것입니다. 기념사업회의 비전 역시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완성된 독립운동사의 공백을 채우는 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활성화 TF팀, 3월6일 구성돼...두 차례 회의 진행



우원식 이사장, 황원섭 부이사장, 홍순계 상임이사, 홍이표 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념사업회 활성화TF는 3월6일 구성한 이후 3월11일(1차), 4월16(2차)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영화 ‘봉오동전투’개봉 연계사업, 홈페이지 제작, 재정확대 방안, 후원자 모집 방안 등이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활성화TF팀 구성>

우원식 이사장, 황원섭 부이사장, 홍순계 상임이사(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홍이표 이사(하이리빙 대표), 김경호 이사 (전 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한동건 이사(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김도경 이사(한국여성문예원장), 유용 이사(서울특별시의원), 한승관 회원 (대한변리사회 이사), 서준오 사무총장(우원식국회의원 보좌관)

6월23일, 한국연극협회 초청으로 고려극장 홍범도 연극 상연



올해 37회째 맞는 오랜 전통의 연극축제인 <대한민국연극제>의 해외초청 공연으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날으는 홍범도 장군>공연을 상연한다. 6.23(일) 오후3시와 저녁7시 두 차례 공연되며, 장소는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홍범도장군 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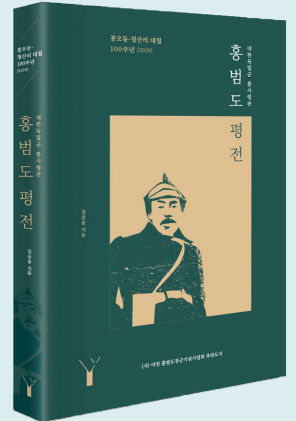
“빨치산 대장 홍범도 장군” 6월21일 재판 발행!

절판되었던 김상웅 작가의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이 재판된다. 기존 출판사였던 현암사 대신 레드우드 출판사에서 저자와 계약해 재판 작업을 했고, 6월21일 경전국 서점에 출판될 예정이다.

새로 제작된 평전은 신규 자료와 사진을 많이 보완되었고, 표지도 하드커버에서 페이퍼백으로 새롭게 제작되었다.

또한 표지 하단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추천도서’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총 300여 페이지, 가격은 16,000원.]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hongbumdo.org 리뉴얼, 6월 말 오픈!

기념사업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6월에 오픈한다. 기념사업회 소개부터 홍범도장군의 삶과 봉오동·청산리전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각종 문헌자료와 영상, 사진 자료 등도 보완하여 홍범도 장군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뉴얼 했다.

9월20일,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홍범도 음악극 ‘극장 앞의 독립운동가’ 공연

오는 9월20일(토), 21일(일) 양일 간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3,000석 규모)에서 홍범도 장군 음악극 ‘극장 앞의 독립운동가’공연을 한다. 기념사업회가 후원하고, 260여 명의 출연진이 공연을 할 예정이다

임원동정



우원식 이사장

4월 문재인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에 다녀왔다. 국회 남북경협특위 위원들과 중국 선양, 블라디보스톡 등을 시찰하고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남북 경협 활성화 길을 모색했다.



황원섭 부이사장

6월 13일 식민지역사박물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로군정서 및 의열단 창단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회의 공식입장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김현정 이사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5.23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작년 2월부터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을 설립했으며 6.12 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유정배 이사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난 3일 도계 광업소 안전점검, 4~5일 화순광업소 안전점검, 18일 장성광업소 안전점검을 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업소별 작업장 특성과 조직 상태에 기반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직원들과 캠페인을 벌였다.



김용환 이사 (전 한남대 부총장)

5월 22일 한남대학교에서 ‘관용·혐오문화 극복하기’로 강연했다. 6월 4일 통일교육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5급 공무원 대상으로 ‘다원주의와 관용’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저서 <혐오를 넘어 관용으로>를 지난 2월 말에 출판하였다.



최익훈 이사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5월 중순 환경부 대표단과 함께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2017년 채택된 물과 평화를 위한 고위급 패널회의의 후속조치인 유네스코 주관 2018 물 컨퍼런스에 한국측 패널로 참석했다.

임원명단

이사장 우원식(국회의원)

명예 이사장 이종찬(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이사장 황원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사 박형상(변호사, 전 서울중구청장)

이사

홍성덕((전)주독일한국대사관공사), **손양호**(조계종중앙박물관후원회장),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홍성종**(토금산업 회장), **이미자**(전 종로구의회 의원), **홍중표**(강동수산업 대표이사/회장), **이영철**(4.19포럼기념사업회장), **홍재구**(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이표**(하이리빙 대표), **손광춘**(출판사 수서원 대표), **김경호**(전 러시아대사관 정무공사), **오세중**(현 대한변리사회 회장), **정내하**((주)미네랄하우스대표), **한동건**((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유용**(서울시의원), **노정래**((주)건화 감리CM본부사장), **홍순계**(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신임이사

김찬(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용환**(전 한남대 부총장), **김준목**((사)혁신경제 이사장), **김현권**(국회의원), **김현정**(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남인순**(국회의원), **박완주**(국회의원), **석순용**(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위성곤**(국회의원), **유정배**(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경철**(서울 노원구의회 의원), **이명식**(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승중**(네무스택 대표), **조태수**((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최윤**(E3PLANB플랜비 대표이사),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한승관**(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홍의락**(국회의원)

임직순 화가의 봉오동전투 민족기록화 김진 웹툰작가의 홍범도 장군 캐릭터 무상사용 기증



故 임직순 작가의 ‘봉오동전투’는 1976년 작품으로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임직순 작가의 가족을 통해 그림 사용허가를 받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각종 행사에 의미 있게 사용할 예정이다.

김진 웹툰작가의 홍범도 장군 캐릭터는 지난 3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이 진행한 ‘3.1운동 100주년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展’에 전시된 작품이다.

김진 작가는 기념사업회의 무상사용 제안에 흔쾌히 수락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버전의 홍범도 장군의 캐릭터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범도 캐릭터 등신대는 6월7일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기념식’행사장 앞에 설치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회원가입

후원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hongbumdo.org (후원하기 클릭)
회원가입 : ☎02-784-3601 (우영옥 간사)